

순위	구분	평균생산비	비중
9위	농약비	398,568	4.6%
10위	토지자본용역비	237,942	2.8%
11위	광열동력비	170,912	2.0%
12위	무기질비료비	137,362	1.6%
13위	수선비	107,488	1.2%
14위	영농시설상각비	85,333	1.0%
15위	고정자본용역비	43,869	0.5%
16위	위탁영농비	33,522	0.4%
17위	기타요금	11,090	0.1%
18위	소농구비	8,707	0.1%
19위	수리비	8,551	0.1%
합계		8,686,662	100.0%

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은 2001년부터 2015년 동안 모두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생산비에서 80.1%를 차지한다. 대농기구상각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임차료, 제재료비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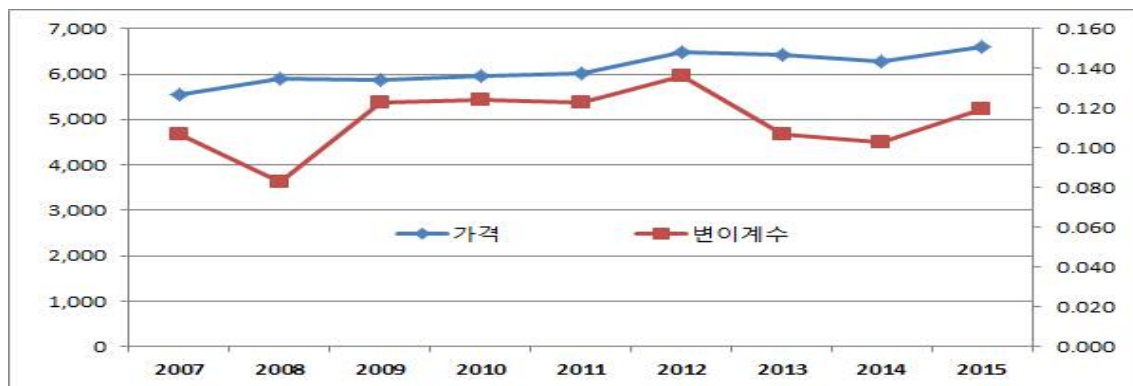
<표 3-3-55> 인삼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연평균	2014 vs. 2015
1순위	제재료비	1,555,150	18.0%	5.9%	-8.1%
2순위	자가노력비	1,124,153	13.0%	2.2%	39.4%
3순위	고용노력비	1,112,578	12.9%	2.8%	1.8%
4순위	대농기구상각비	1,035,644	12.0%	11.2%	45.1%
5순위	임차료	952,060	11.0%	9.6%	44.3%
6순위	종자/종묘비	583,763	6.8%	3.2%	-27.2%
7순위	유동자본용역비	554,987	6.4%	1.4%	-0.8%

#### 나. 느타리버섯 농가 경영현황 및 생산비 변동 추이

느타리버섯의 도매가격은 연평균 2.3% 증가하고, 가격 변이계수는 연평균 3.5% 증가하여 가격 수준과 변동성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(그림 3-3-17).

(단위 : 원/kg, 상품 기준; 좌측 도매가격, 우측 변이계수)



<그림 3-3-17> 연도별 느타리버섯 도매가격 및 변이계수 변동 추이(2007-2015)

자료 : 농산물 유통정보(aT KAMIS)